

올해는 ‘선거의 해’

조계종, 14대 중앙종회의원·교구본사 9곳 주지선출 선거법 개정 논의 활발 예상... ‘공명선거’도 기대

조계종(총무원장 지관 스님)은 올해 선거의 해가 될 전망이다. 교구본사 9곳의 주지와 제14대 중앙종회의원, 동국대 임원·이사장 선출 등 종단 운영의 흐름을 판가름 하는 주요 선거가 잇따라 열리는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선거법 개정 등 관련 논의도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가장 큰 관심을 끄는 선거는 10월에 치러질 제14대 중앙종회의원 선거다. 총무원장 지관 스님 체제가 실질적으로 시작되는 올해, 종단운영의 주도권을 놓고 여당격인 ‘일승회’와 야당인 ‘미래를 여는 승가회(前 보림회 금강회)’가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 제13대 때와 마찬가지로 전문성을 갖춘 젊은 소장파 스님들의 진출 등 ‘세대교체’가 이뤄질지 관심이 쏠린다.

‘중앙종회의원선거법’에 따라 직선과 간선으로 81명(교구본사별 4~2명씩 총 61명과 비구니 10명, 직능별 20명)을 선출하는 종회의원은 승랍 15년, 연령 35세 이상의 승

려로 종단의 주요 입법과 대의를 결정하는 권한을 가진다.

올해는 제2교구 용주사를 비롯해 역대 가장 많은 9곳의 본사주지 임기가 만료된다. 이는 실제 주지를 뽑는 교구본사 23곳의 약 5분의 2에 달하는 규모. 조계종도 지방자치 강화라는 사회적 흐름에 따라 총무원 중심의 종무행정인 교구본사로 이양되는 추세다. 따라서 교구본사 주지의 영향력도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최근 해인사 월정사 봉선사 등의 사례처럼 강한 추진력과 전문성을 갖춘 젊은 주지들의 등장은 지역 불교계의 새로운 활력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올해 주지 선거에 쏠린 관심이 크다.

가장 먼저 2월에 용주사가 현 주지 정탁 스님의 후임을 선출한다. 이어 5월에 제9교구 동화사(주지 지성)와 제10교구 은해사(주지 법태)도 주지 임기가 만료된다. 또 제6교구 마곡사(주지 진각), 제11교구 불국사(주지 종상)는 7월, 제16교구 고운사(주지 혜성)는 8월, 제24교구 관음사(주

지 용주)도 10월에 새 주지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가 예정돼 있다.

사실상 방장의 지명으로 주지가 선출되는 총림사찰인 고불총림 백양사(주지 명공·제18교구)는 11월, 영축총림 통도사(주지대행 현문·제14교구)도 방장 후보 조우스님의 중앙종회 추대와 관련한 논의가 끝난 후에 주지 선출 절차가 가시화 될 것으로 보인다.

각종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선거제도의 개선 요구도 지속적으로 제기될 전망이다.

청정선거실현승가운동본부 수완 스님은 올해 열릴 각종선거와 관련해 “1994년 종단 개혁이후 지금까지도 선거로 인한 승단의 집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선거법 개정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 강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 “제14대 종회의원선거이전에 교구총회가 실질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총무원이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야 한다”며 관련제도 보완을 촉구했다.

조용수 기자 pressphoto@buddhapia.com

■지관스님 BBS대담서 황우석·강정구 교수관련 ‘발언’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이 1월 2일 불교방송과의 신년대담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황우석 박사 사건에 대한 불교지도자로서의 입장을 밝혀 사회적 파장을 일

인시켰다고 본다”고 밝혔다. 또 “누구라고 밝힐 순 없지만 이해관계가 결부돼 있다”며 황 박사 사건에 대한 자신의 시각을 드러냈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민이 어떤

포 배아줄기세포의 생명윤리 논란과 관련해 “어떤 종교에서는 성체줄기세포는 괜찮고 황 박사 연구는 안 된다고 반대하는 하는데, 우리가 서양윤리에 구애받아서 안 된다”는 입장으로 분명히 했다. 한편, 지관 스님은 동국대 강정

을 주문했다. 또 “사회의 갈등과 반목을 자기입장만을 고집하는데서 비롯되므로 상생과 화합을 위해 스스로를 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관 스님은 이와 함께 올해 중무행정의 역점을 △이웃과 함께

“정부, 황박사 연구지원 해야” 강교수 관련 ‘시각차’ 인정 “중도 정신으로 화합을”

우리고 있다. 지관 스님은 이날 “황 박사가 불교신자이기 때문에 동조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나는 황 박사가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은 정치적·사적인 부분에 소홀했던 것이 한 원

인이 됐다”고 밝혔다. 또 “누구라고 밝힐 순 없지만 이해관계가 결부돼 있다”며 황 박사 사건에 대한 자신의 시각을 드러냈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민이 어떤

포 배아줄기세포의 생명윤리 논란과 관련해 “어떤 종교에서는 성체줄기세포는 괜찮고 황 박사 연구는 안 된다고 반대하는 하는데, 우리가 서양윤리에 구애받아서 안 된다”는 입장으로 분명히 했다. 한편, 지관 스님은 동국대 강정

을 주문했다. 또 “사회의 갈등과 반목을 자기입장만을 고집하는데서 비롯되므로 상생과 화합을 위해 스스로를 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관 스님은 이와 함께 올해 중무행정의 역점을 △이웃과 함께

조용수 기자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은 1월4일 이명박 서울시장의 신년예배를 받고 조계사 일대의 성역화 불사에 서울시 차원의 협조를 당부했다.

“조계사 ‘국민의 사찰’로 거듭날 것” 이명박 시장, 지관스님 예방해 지원 약속

지난해 잇따른 종교관향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이명박 서울시장의 신년인사차 1월 4일 오전 10시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예방했다. 최근 유력 대권 후보 중 한 명으로 거론되고 있는 이 시장은 지난해 자신의 종교적 발언과 관련해 일었던 사회적 논란을 의식한 듯 이날 만남에서 조계사와 한국불교역사문화재단 주관 불사에 대한 시 차원의 지원을 강조했다. 이 시장은 “조계사와 정비 불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 돼 청계천과 인

사동, 우정국로, 조계사로 이어지는 구간은 시민들의 걷기 코스로 격격”이라며 “한국 불교 1번지 조계사는 국민의 사찰이자, 명소로 거듭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지관 스님은 “한국을 대표하는 전통문화 공간인 조계사 주변정비에 많은 관심을 가져준데 감사하며, 앞으로도 많은 협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5일에는 오영교 행정자치부장관도 지관 스님을 예방하고 오찬을 함께 했다. 조용수 기자

동국대 이사장·총장 선거도 ‘대기’

조계종 종합학교관리위원회(위원장 원태)의 감독을 받는 학교법인 동국대도 일부 이사과 총장의 임기가 올해 말에 만료된다. 특히 지관 스님(현 총무원장)과 이사장 현태 스님의 임기가 5월이던 끝나게 돼, 새 이사장 선출이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동국대 이사는 임기만료 3개월 전에 종합학교 관리위원회의 복수추천으로 중앙종회 동의를 거쳐 임명하

2006 **군포교 합시다**
조계종 군포교구·현대불교 공동캠페인

1면에서 이어짐

허씨는 군법당은 있는데 부처님을 모시지 못한 경우나 불상이 넓고 훼손된 경우, 특수소재(RFR)로 만들어진 조잡스러운 불상 교체도 무상 지원할 계획이다. ‘사랑의 이불함대’로 전국의 소년소녀가장에게 수천체의 이불을 보냈던 정영은 보살도 좌복 5천개를 제작해 군법당에 전달하고 싶다는 분사에 기탁 의사를 밝혔다.

정보살은 좌복에 ‘조국을 위한 다면 무엇인들 아까우랴’라는 문구를 상단에 새기고 머리가 닿는 부분을 표시하기 위한 마크도 수 놓을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낮에는

김두식 기자

파키스탄·미국 구호 나서 조계종, 현장방문 성금전달

조계종이 지진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파키스탄 난민과 태풍 카트리나로 피해를 입은 미국 난민 돕기에 발 벗고 나섰다. 조계종은 1월 9일 사회부담 지원 스님과 사회국장 해용 스님등을 대표단으로 미국과 파키스탄에 파견했다. 총무원은 파키스탄에 1억원 상당의 구호물품을 전달하는 것을 비롯, 지난해 8월 허리케인 카트리나로 피해를 겪던 미국 뉴올리언스 재민들에게 성금 1억4000만원을 전달할 예정이다. 박병영 기자

4급 승가고시 3월3일 실시

조계종 교육원(원장 청화)은 3월 3일 중앙승가대에 4급 승가고시를 치른다. 응시를 원하는 스님은 1월 23일~2월 17일까지 각 교구본사에 접수하면 된다. 남동우 기자

‘대장경학’ ‘이체자’ 특별분과 신설 한국불교학결집대회, 다채로운 기획 눈길

4월22~23일 합천 해인사에서 열리는 제3회한국불교학결집대회(대회장 종림·이하 결집대회)가 더욱 다채로워질 전망이다. 대회조직위(위원장 이종표)는 대장경학 및 이체자 관련 특별분과를 신설하기로 확정했다고 1월 5일 밝혔다. 신설되는 분과는 △ ‘천년으로 이어지는 대장경의 가치(가제)’라는 분과 △경북대 남경희 교수 등 국내 서지학자들로 구성되는 대장경학 관련 분과 △연세대 이규갑 교수를 중심으로 하는 불교 이체자 분과 △강원 분과 등이다. 이 가운데 ‘천년으로 이어지는 대장경의 가치(가제)’ 분과는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와 결집대회 조직위가 공동 마련하는 것으로, 국내외 전문가 10인으로 분과를 구성해 국제학회의 성격을 띠게 됐다. 또 강원분과는 강원 학인 스님들의 결집대회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조직위는 송광사 원경 스님을 분과장으로 내정했다. 박익순 기자

본사사령

김두식
이은희
수 편집국 기자
2006년 1월 3일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김광삼 인쇄인 : 채수삼

110-030 서울특별시 중로구 청운동 54번지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인터넷 실시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FAX (02)737-0698 불교포탈 부디피아 www.buddhapia.com
광고국 (02)2004-8213-6 불교쇼핑 마하루 www.mahamall.co.kr
FAX (02)737-0696 온라인서점 예시어문 www.yosiamun.com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1개월 5천원·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태고종립 동방불교대학 2006학년도 신입생 모집요강

한국불교의 동량을 가꾸고 배출하기 23년, 전통불교문화가 여러분의 열과 숨결로 승화되는 곳, 동방불교대학이 새로운 法緣을 기다립니다.

학과	교육내용	모집인원	비고
불교학과	불교의 교리·사상·역사와 경전, 종단의 정체성 확립과 관련한 포교와 복지과목 등을 이수하고 기초불교의식을 배운다.	100명	2년제
승가학과	불교학의 기본교육과 주요 내전 및 종학 등 대승교화 종단의 위상을 담보하는 교과를 이수하고 기초불교의식을 배운다.	100명	2년제
법패학과	불교학의 기본교육과 불교신행 및 사찰운영에 필요한 각종 제의식 등 전통불교의식의 이론·실기를 겸수한다.	50명	2년제
불교미술학과	불교학의 기본교육과 불화·단청을 비롯한 불교미술 전반의 체계적 학습을 위한 미술의 이론·실기를 겸수한다.	50명	3년제

구분	일자	장소
원서교부 및 접수	2005. 12. 26(월)~ 2006. 2. 3(금) 17:00	본교 교학처 www.dongbang.org 인터넷 교부·접수
전형고사 (필기·실기·면접)	2006. 2. 10(금) 10:00~17:00	본교 강의실 및 실기실
합격자 발표	2006. 2. 13(월)	개별통지 본교 홈페이지 www.dongbang.org
합격자 등록	2006. 2. 13(월)~2.17(금)	계좌입금: 동월 029-01-130257 동방대

3. 지원자격: 다음 사항 중 한 가지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한다.
가. 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이상의 학력소지자.
나. 태고종단 건부의 추천을 받은 자.

4. 지원방법: 가. 불교학과는 정규 및 통신반의 선택지원이 가능하다.
나. 승가학과·법패학과·불교미술학과는 정규반만 지원이 가능하다.

구분	필기고사 불교상식	실기고사	면접	합계
불교학과	60%(60점)	-	40%(40점)	100%(100점)
승가학과	60%(60점)	-	40%(40점)	100%(100점)
법패학과	30%(30점)	40%(40점)	30%(30점)	100%(100점)
불교미술학과	30%(30점)	40%(40점)	30%(30점)	100%(100점)

가. 태고종 승려로 출가독도하기 위해서는 향후 종단의 선교육 후속도 제도시행에 따라 본교(전체학과 해당)를 반드시 졸업해야 한다.
나. 불교학과 통신생은 본교 홈페이지 사이버 음원강의 및 통신강의CD를 통해 교육한다.
다.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입학학을 취소한다.
라. 승적증명서를 첨부하지 않거나 종단의 합동독도수계를 증명할 수 없는 지원자는 사별여부를 불문하고 승복을 착용할 수 없다.
마. 승적증명서나 수계증서본을 제출할 수 없는 재가불자는 나머지 서류만 제출한다.
바. 전형일에는 반드시 본인이 참석해야 한다.

가. 재학생 및 졸업생 중 출가희망자에게는 종단의 합동독도교육(태고종립 선암사에 입법하여 전통행자교육 및 승려의 습의를 수행함) 때 특별을 부여한다.
나. 졸업생 전원에게 태고종단 2급 정교종단 자격증을 수여한다.
다. 졸업생 중 출가승려에게는 태고종 5년 법랍경력(의 선덕(善德)법계를 품수한다.
라. 졸업생 중 재가승려(전법사)에게는 태고종 5년 법랍경력의 수교(修敎)법계를 품수한다.
마. 법패학과 졸업생에게는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보존회에서 수료증을 수여한다.
바. 불교미술학과는 각종 공모대전 참여 및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국가고시)을 대비하여 특강을 실시한다.
사. 성적우수자에게 각종 장학혜택을 부여한다.

지방학생들의 교육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다.

1982년 10월 18일 태고종립 불교포교사전문대학으로 개교.
1983년 6월 1일 동방불교대학으로 개명.
1990년 3월 1일 법패과 개설 및 기숙사 개설.
1991년 3월 1일 불교미술과 개설.
2004년 3월 1일 승가과 개설.
2005년 2월 28일 제22회 졸업식, 1,043명 졸업생 배출.
2005년 12월 20일 승가과·법패과·불교미술과를 승가학과·법패학과·불교미술학과로 공칭, 학과개편 부여/불교미술학과 2년제에서 3년제로 전환

문의처 : 동방불교대학 교학처
136-823 서울시 성북구 성북2동 330-586
☎ (02)745-2030~2 FAX (02)744-3461
홈페이지 www.dongbang.org